



대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이 상 우
한림대학교 총장

선진 민주국가는 민주주의 정신과 제도가 안정되게 지켜지면서도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대부분의 신생 민주국가는 정치혼란이나 사회불안 속에서 허덕이며 사회 발전은 고사하고 민주제도 자체를 유지하는 데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제 기능을 하는 대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들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지적 지도(知的指導)를 해 주어야 한다. 닥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여 알려 주고, 나아가야 할 길을 미리 알려 주며, 판단의 기준을 선명하게 밝혀주는 '길잡이'가 있어야 민주주의는 사회역량 결집의 제도로 승화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독선적 정치지도자가 '길잡이'를 지체하고 나서면 독재정치로 전락한다. 반대로 무지한 대중을 선동하고 대중의 무지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나서면 민주주의는 '페론이즘'으로 변질된다. 정치권력에서 독립된 자유지성이 '길잡이'가 될 때 비로소 그 민주주의는 바르게 운영될 수 있다.

옛 왕조시대에도 자유지성에 의한 군왕의 독선 통제를 제도화하여 보장하였다. 지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바른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조선왕조의 정교한 '선비정치'가 대표적인 정치에 대한 지적 통제제도였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지성인의 집단으로서의 대학이 그 기능을 한다. 그 사회가 놓여 있는 내외환경을 분석 제시하고, 사회발전의 진로를 모색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공급하며, 사회 각계의 지도자를 훈련하여 내어보내는 일을 대학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뜻에서 대학은 민주사회의 통합과 발전 방향 설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

대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슨 연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어느 규모의 기구로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대학에 맡겨 두어야 한다.

”

한국의 대학의 역사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세계 최초의 국립대학이라 할 성균관부터 따지면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할 수 있지만, 현대적 대학으로 따지면 이제 반세기의 역사밖에 없는 셈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한국대학들은 외형적으로는 대학의 모양을 갖추었으나, 사회에서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지적 길잡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대학의 위상을 낮추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대학을 단순 고등교육기관, 고급인력의 양성기관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도 대학을 조금 수준 높은 전문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대학을 통제하고 있다. 이런 정책하에서 한국의 대학들에게 민주사회의 지적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역사주도의 기능을 담당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더 커다란 장애는 대학인 자신들에게 있다. 대학을 구성하는 교수들이 스스로를 연구와 지식전달의 기능인으로 비하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들이 모두 자기가 이 시대 우리 사회를 지적으로 이끄는 자유지성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기성찰을 깊이 해 보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개혁'이 새 정부 출현과 더불어 등장한 유행어가 되었다. 정치 개혁, 재벌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이 개혁의 큰 물결 속에 대학 개혁도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대학도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해야겠지만, 정치가 선도하는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율적인 개혁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초정치적(超政治的) 자유지성인의 집단으로 남을 수 있어야 주어진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학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슨 연구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영역에 중점을 두고 어느 규모의 기구로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대학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대학에 맡겨 두어야 한다. 관료가 세운 계획에 맞추어 지원금과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그리고 각종 규제법령으로 대학을 이끌어가게 되면 초정치적 자유지성인의 집단이라는 대학은 그 생명을 잃게 된다.

대학은 자유스러워야 한다. 한국사회가 안정 속에서 착실하게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박지**